

목포권

만호진 일대→개항장 길
북교동 일대→쌍교촌 길

목포 원도심은 근대사 거리박물관

양동교회 일대→민족길
오거리 일대→유달산길

시, 스토리 텔링 등 관광 상품화 추진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목포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난 2002년 수립된 목포 역사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상 원도심 권역 3만8천47㎡를 5개 길로 설정해 대표적 역사체험공간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일본인이 거주했던 만호진 일대를

'개항장 길'로, 조선인 마을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북교동 일대를 '쌍교촌 길'로, 민족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정병여고 양동교회 일대를 '민족의 길'로,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마을을 연결해주는 오거리 일대를 '신파의 길', '유달산 길'로 각각 조성하게 된다. 오는 2013년에 마무리될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에는 289억원이 투입되며, 정부의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돼 내년부터 95억원을 지원받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원도심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010년 4월까지 목포역사문화타운 기본계획수정 용역을 마무리한 뒤 용역결과에 따라 각종 문화관광 및 원도심 재생 정책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발굴해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문화·역사자원을 특색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도 추진한다. 목포시가 구상중인 스토리는 '10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과 '추억여행 흔적 찾기' 등 두 가지다. '만일 100년 전에 보낸 편지가 우여곡절 끝에 우체국에 보관돼 있다가 오를 당신에게 배달된다면...'이라는 명제 아래 문화관광해설사의 맞춤형 해설과 함께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은 시작된다. 구 일본영사관을 출발해 국도 1·2호

선 분기점~이훈동 정영~구 심상소학교~근대건축(적산가옥)~동양척식주식회사~구 호남은행목포지점~구 동원원사~구 청년회관~양동교회에 이르는 코스다. 이곳은 마치 1930년대 영화 세트장처럼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돼 있어 항구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내의 한마디로 '거리 박물관'이자 역사·건축·고미술학 관련 학생, 일반인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현장과 시각

'밥상' 앞에 뒷집진 지자체들



이상선

목포 주재 차장

농업인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물 걱정하지않고 농사 지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올해는 유독 가뭄이 길어지면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은 탓에, 이 같은 소원이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전남은 경지면적 전국 1위, 농가인구비율 전국 1위의 농도다. 농가인구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합령 60%, 무안 58%, 신안 50%, 영광 37% 등이 손꼽혀 물에 시달린 강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농어촌공사가 이들 4개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7천426억원의 예산을 세워 영광강 4단계 사업을 시작한 게 지난 2001년이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내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완공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9년여 동안 투입된 예산은 전체의 22%인 1천660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6월말 현재 공정률도 21%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이라면, 내년 완공은 커녕 향후 30년 이상은 족히 더 기다려야 한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업기간 동안 연인원 360여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4개 지역에서 일게 되는 연간 740억원대의 농가소득도 기대할 수 없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처럼 '필름 예산'에 밀려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농업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내년부터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불만소리가.

특히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무관심에 대해 성토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거세지는 추세다. 농어촌공사 영광강사업단 관계자들이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정부예산 확보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해왔으나, 지자체마다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어 결국 사업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무안군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합령군 역시 이낙연 국회의원에 집을 떠넘겨버린 상태다. 신안군과 영광군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사업진행 설명회에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아 농업인들의 분노를 산 적도 있다.

기업이나 외자유치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책은 아니다. 영광강 4단계 사업의 경우 농업·농촌·농업인들을 살리는 생명과도 같은 속원사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이라는 핑계만 들어 손을 놓고 있으니 어찌 농업인들의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는가.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당장이라도 정부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며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slee@kwangju.co.kr

목포항만청 - 현대삼호중 '산단개발' 협약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지난 6일 목포항 용당부두 기능 확보와 용당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현대 삼호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용당산단 계획지구 내 항만부지와 용당부두 내 사유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제반조건과 이행사항 등을 사전에 정해 양측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용당부두는 배후부지가 사유

지로 되어 있어 부두로서의 제기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번 협약체결로 목포 항만청은 용당부두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연안화물 이전 문제와 목포항 부두 재배치에 따른 항만 효율성 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 삼호중은 불록공장 건설과 목포항 부두 기능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돼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이야기 꽃피는 산책로

목포 갯비위터널에서 평화광장 달맞이 공원을 연결되는 산책로가 최근 개설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하당 택지개발사업으로 폐쇄돼 주민들이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쳤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2시간 거리의 산책로로 변모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갯비위터널에서 평화광장 달맞이 공원을 연결되는 산책로가 최근 개설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하당 택지개발사업으로 폐쇄돼 주민들이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쳤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2시간 거리의 산책로로 변모했다. <목포시 제공>

압해 ~ 압태도 '새천년대교' 건설 본격화

신안군 지질조사 착수

신안군 압해도와 압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건설사업이 본격화됐다. 신안군은 8일 "새천년대교 기본설계를 위해 현재 입찰에 참여한 10개의 대형 건설업체에서 육상과 해상지역의 지질조사를 한창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사진)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은 지난 3월 조달청에서 일괄입찰(턴키)공고 후 이어 4월 초에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10개 대형건설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새천년대교는 설계단계부터 입찰사간 경쟁을 통해 신공법, 신기술 적용 등 창의적인 성과도출을 유도하는 턴키공사로 발주된다. 오는 9월 1일 가계약찰을 마친 후 2010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7월부터 총사업비 5천500억



원을 투입해 역사적인 연도교 사업에 착수,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새천년대교가 완공되면 각종 농수산물의 물류 수송비가 절감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속하게 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서남해안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31일까지 위탁 법인 모집

진도군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법인을 모집한다. 진도군은 8일 "진도읍 남동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위탁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탁운영법인은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내실 있고 수행 능력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진도군 주민생활복지과(061-540-3191)로 접수하면 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올 여름휴가 뱃길여행 어때요"

목포항만청, 여객선 이용객 1천만명 유치 선포식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이 전체의 비경을 자랑하는 신안 흑산, 홍도와 완도 보길도, 진도 관매도 등 서남해를 찾는 뱃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었다. 목포항만청은 8일 목포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김삼열 청장을 비롯해 서남권 해운관련 업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이용객 1천만명 유치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비스,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터미널 잔교 등에서 뱃길 이용객들에게 손부채 등을 나눠줬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수려한 해안선과 섬, 갯벌 등이 지역만이 가진 비교우위의 섬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여객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자 서비스, 안전 실천 대회를 열게 됐다"면서 "터미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여객 서비스 문화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대인동상일부동산
(0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상남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62)383-5221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입지역)
▶기타용도
▶사무실(상무지구 상무주변)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경리하십시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062)531-4665
모텔
신속모텔(매매, 임대)
무인모텔(매매, 임대)
일반모텔(매매, 임대)
대중사우나(매매, 임대)
고시원(매매)
※매매, 매수, 임대, 입차 물건 접수합니다.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2억 2천 2백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동
공시지가+건물과표 7억 4천 4백 2천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 땅 50P 공시지가 3억 5천 5백 2천 4백 4천
30m 도로 접
감정가 3억 8천 8백 2천 2백
장성 대 270P 건 180P
1층 점포 6칸 별도 주차 2동
2층 사무실
32억 월당금
대 200P 건 450P
보 8억 월 2350만원 용 13억 포함
감정가 45억 매 24억 5천
빌딩매대 1500P 건 1000P 지하 1층, 지상 5층 전채 공실
환승주유소급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대 12억 용자 6억 포함
환승점터, 요양원, 필자부지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막 4억 5천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장성읍 아사읍목장, 필자 10000p 4억 7천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016-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월당지주상업용지
주유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집합청 전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일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집합청 전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일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